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눅8:40-48)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sup>40</sup>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sup>41</sup>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sup>42</sup>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sup>43</sup>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sup>44</sup>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sup>45</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sup>46</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sup>47</sup>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sup>48</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건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어떨 때 매우 치욕적이지만, 주님(*the Divine*)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데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건 그 자체로 온전한 예배(*total prostration*)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이 생각하기를, 힘과 능력, 지혜에 있어 오직 주님만이 전부이시며, 사람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모든 선은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으며, 사람으로는 전혀, 오히려 악만 말미암는다 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이런 사실을 시인, 인정할 때, 그는 마치 그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것 같으며,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얼굴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될 때, 그는 또한 자신의 본성(*the proprium [what is his own]*)으로부터도 지워지게 되는데, 이 본성이라는 것은 본질상 완전히 악하기만 한 것입니다. (AE.77) *Humiliation before a man produces a bowing down, according to*

‘회당장 아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o the estimation of him; but in presence of the Divine it produces total prostration, especially when man thinks that the Divine in respect to power and wisdom is everything, and man in comparison is nothing, or that from the Divine is all good and from man nothing but evil. When man is in this acknowledgment from the heart he comes as it were out of himself, and thence falls upon his face, and when he is thus out of himself he also is removed from the proprium [what is his own], which in itself is wholly evil; (AE.77)*

이 내용은 스페텐보리 저, ‘계시록 해설’(Apocalypse Explained) 77번 글 인용이며, 이 글은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중,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And I fell at his feet)에 관한 속뜻 주석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40절입니다.

<sup>40</sup>예수께서 돌아오시매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무리’의 영어 성경의 표현은 ‘people’인데, 그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무리’는 갈릴리 건너편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또 본문에는 ‘예수’께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는 선으로서의 주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를 환영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진리 안에 선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진리 안에 선이 있을 때 악을 멀리할 수 있고, 이웃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리는 예수가 돌아오시자 그렇게 반가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하시기를 원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병을 고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중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하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sup>41</sup>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아래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리 앞에 지극히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발’, ‘발’은 몸의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 진리 즉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의미하는데, 그 속에 내적 진리가 들어 있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내적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선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발’은 내적 진리로 가득한 자연적 진리를 뜻하며, 다르게 표

현하면, 선이 있는 진리를 뜻합니다. 내적 진리로 충만한 자연적 진리는 마치 주님의 인성 안에 여호와와 신성이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성(주님이 입으신 몸)이 말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자연적 진리와 상응한다면, 여호와와 신성은 가장 깊은 곳의 내적 진리와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되신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내적 진리를 품은 말씀의 자연적 진리로부터도 무한한 능력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 모두 말씀의 글자의 뜻에 담긴 내적 진리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야이로가 주님의 발아래 엎드린 것은 그가 내적 진리를 담은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이 나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야이로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린 모습이며, 그래서 그는 진리 앞에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께 자기 집으로 오실 것을 청했습니다. 집은 사람의 의지를 뜻합니다. 그렇기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집으로 주님을 청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 들어 있는 말씀 또는 선이 있는 진리가 자신의 의지 가운데로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며, 초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적인 것이 들어있는 말씀이시며, 그러므로 선이 있는 진리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42**이는 자기에게 열두 살 된 외 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말씀에서 ‘아들’은 보통 이성을 나타내거나 진리를 뜻하고, ‘딸’은 의지 또는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열두 살이라고 할 때, 열둘(12)은 인애(charity)와 믿음에 관한 모든 진리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열두 살 된 딸이 죽어가는 것’은 그 속뜻으로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영적인 상태가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인애와 믿음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지만 실천할 의지가 없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열두 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

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에 따른 삶인지를 분명히 알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의지가 말을 듣지 않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될 때, 점점 타성이 생겨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듯 진리의 삶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회당장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주님이 자신의 의지 가운데로 오셔서 죽어가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되살려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 주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의 속뜻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시는데 도중에 한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43절, 44절입니다.

**43**이에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공교롭게도 이 여인 역시 병을 앓은 햇수가 열두(12) 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열두 해는 회당장의 딸이 열두 살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이 여인 역시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주님과 인애에 관한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혈루증을 앓고 있습니다. 혈루증이란 일종의 부인병인데, 하혈(下血)을 하기 시작하면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말씀에서 ‘피’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혈을 계속하는 것은 진리를 계속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면 잊어버리고, 배우고 나면 또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업이 공부가 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퇴보를 하지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진리를 배우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에 따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거나, 오히려 진리에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악한 영들이 와서 진리를 파괴합니다. 마치 농부가 뿌리면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가만히 손을 댍니다. 그랬더니

혈루증이 즉시 나았습니다. 여인이 주님을 마주 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그가 아직 주님과 결합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결합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 중에 일어설 힘조차 없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인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찾아다니던 의사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세상 지식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댍니다. 여인은 왜 주님의 옷을 덥석 붙잡지 않고 단지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을까요? 옷의 가장자리는 가장 바깥쪽 진리, 즉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이로가 예수의 발아래 었던 것이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은 영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는 내적 진리의

‘회당장 아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능력을 확고하게 믿는 모습입니다.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내적 진리가 담길 때 가장 힘이 있는 진리가 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내적인 진리를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것, 즉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내적인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완전한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하나로 만드심으로 해서, 즉 신적 인성(Divine Human)이 되심으로써 지옥을 완전히 이기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내적 진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진리만 소중히 여기고 문자의 뜻은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릇 없이 내용물만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내용물마저, 내

적인 것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 가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 있는 내적인 진리의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것은 소통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본문에 나오는 ‘옷 가’는 히브리어로 ‘찌찌트’라 하는 것으로, 다음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옷단 귀에 만드느 술’을 말합니다.

<sup>38</sup>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sup>39</sup>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sup>40</sup>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하나님 앞에 기록하리라 (민15:38-40)

계속해서 45절, 46절입니다.

<sup>45</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sup>46</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앎이로다 하신대

그러자 뒤에 숨어 있던 여인이 주님 앞으로 떨면서 나아왔습니다. 47절입니다.

<sup>47</sup>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주님께서 숨어 있기를 원하는 여인을 사람들 앞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왜 여인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불러내셨을까요? 여인의 입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병 고침의 기적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께 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공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의 것을 훔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을 불러내신 후,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공을 주님께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이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sup>48</sup>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인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고, 그러자 주님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병을 고친 것이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 이 ‘찌찌트’는 그 사람의 정체성, 모든 것을 나타내며,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랬다가는, 특히 유대 정결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만졌다가는 현장에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여인이 몹시 두려워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이런 정황 때문입니다. 여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찌찌트’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고 주님은 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현장, 이 여인에게만큼은 ‘딸’이라는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저명인사라 하더라도 자기 피붙이가 자신의 ‘찌찌트’ 만지는 건 괜찮기 때문인데요, 주님의 이 기가 막힌 순간적 배려에 아마도 둘러섰던 모든 백성이다 고개를 끄덕이며 흐뭇해했을 것이며, 이 여인은 온몸을 떨며 주님의 사랑과 애정, 다정하신 배려에 깊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휴, 이 글을 쓰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주님으로부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속뜻으로 보면 말이지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 이고, 하나는 혈루증을 오래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진리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으로, 또 주님의 옷 가에 손을 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 안에서 주님을 아버지와 아들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과 진리를 분리하는 일이며, 믿음과 인애(仁愛, charity)의 삶을 분리하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주님을 이루는 두 가지 본질인 선의 본질과 진리의 본질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선으로서의 본질을, 아들은 선에서 비롯한 진리로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서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주님께 이렇게 두 가지 본질이 있는 것은, 사랑이나 선은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고, 진리로 표현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믿음과 인애의 삶을 분리했습니다.

※ 태고교회 때,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들, ‘가인’이라는 신앙고백을 하던 교회가 이런 분리의 시조입니다. ‘가인’은 신앙(faith), ‘아벨’은 인애(charity)를 상징합니다. 이 둘은 분리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모든 선과 진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며 인간에게서는 악과 거짓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

증을 앓는 여인은 그것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소통하려고 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둘 다 말씀의 글자의 뜻에 담긴 내적 진리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에서는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으로,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발이나 주님의 옷가는 모두 내적 진리가 담긴 말씀의 글자의 뜻을 나타냅니다. 말씀의 글자의 뜻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 교회 가르침 ‘성경에 관한 교리’ 54번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교회의 교리는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추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뒷받침도 되어야 한다’(doctrine is not only to be drawn from the sense of the letter of the Word, but must also be confirmed thereby)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내적 진리들은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 표상된 것입

‘회당장 야이로와 열두 해 혈루증 여인’

니다. 그러므로 내적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이신 주님이라는 사실과,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 주님은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진리를 주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아버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모두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 표상된 내적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교리는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나와야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뒷받침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글자의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말씀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내적 진리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자연적 진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적 진리와 관계는 무시, 오직 자연적 진리에만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진리

는 내적 진리의 표상이며, 내적 진리는 자연적 진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의 자연적 진리 안에 담긴 내적 진리의 능력을 의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안에 담긴 내적 진리를 깨달아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눅8:44)

아멘

원본

2019-02-17(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년 5월 11일(D5)

한결같은 교회 변일국 목사